

국가중요어업유산(부제 :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정현정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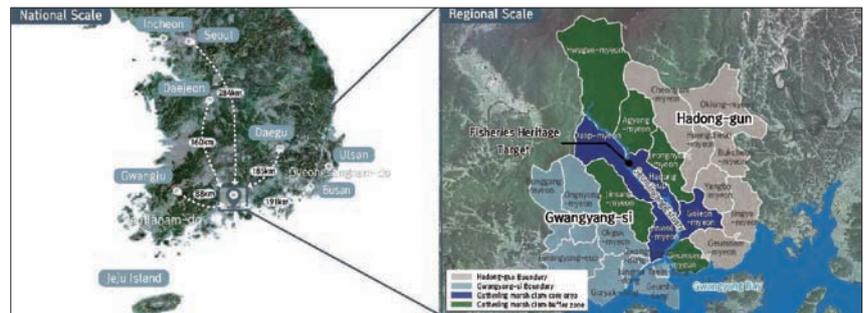
2-2

국가중요어업유산 개요

대상	한국의 어업 체계, 육지경관, 해양경관, 그리고 관련 상품
기준	1) 식량과 생계 안보, 2) 농업생물다양성, 3) 지역 및 전통지식체계, 4) 문화, 가치체계, 사회조직
주관	해양수산부
등재목록수	8 (부록 참조)
절차	지역정부가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원하면 해양수산부가 정해진 기준과 충족 요건에 따라 지원서를 평가한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 손틀어업은 총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 목록 중 7번째로 지정됨
- 위치



©하동군

한반도 남쪽의 중서부에 위치한 섬진강은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큰 강이다. 강 유역의 면적은 총 4,896.5km²이고 길이는 212.3km에 달한다. 지리적으로 섬진강 유역은 남동쪽으로 뻗은 소백산과 지리산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는 높은 산과 봉우리들이 많다. 역사적으로 섬진강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였다. 생태학적으로 섬진강은 멸종 위기종과 국가 지정종을 포함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였다.

위 지역은 섬진강 하구로, 하동군과 광양시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백두산의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게다가 강이 남해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기수역은 기수어종과 회유성 어종이 풍부하다. 전통적으로 하구는 강, 산, 바다 환경을 기반으로 활발한 생계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특히 섬진강 하구 기수역의 야생생물 서식지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특히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수산자원들(예: 재첩, 참게, 은어, 전어, 농어)을 활용했고 이들을 생계의 주요 원천으로 발전시켰다. 동시에 주민들은 부차적인 생계 수단으로 경사면을 경작해 쌀, 녹차, 매실, 감, 밤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다. 이러한 점에서, 섬진강 유역의 풍부한 해양생태계는 식량안보에 불리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계 기반을 제공하였다.

● 지역공동체의 손틀어업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강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관리해 온 덕분에 오늘날까지 강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다. 섬진강의 하구는 다양한 내수면 어종(예: 은어, 강굴, 참게)의 서식지이고, 그 중에서도 재첩은 이 지역의 대표자원이다. 재첩은 민물조개로 염도가 3-20 psu 사이인 1급수와 2급수의 기수역 모래밭에서 주로 서식한다. 원래 재첩은 한국 전역의 강과 시내에서 발견되었지만, 하구 개발로 야기된 수질오염으로 급속히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그 결과 재첩은 현재 한국 강 대부분에서 사라지거나 그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보호 노력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덕분에 섬진강 하구는 현재 재첩이 자라기에 쾌적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오늘날 섬진강 하구는 국내 최대 재첩 서식지이고 이곳에서 잡히는 재첩은 흔히 “하동 재첩”이라고 불린다.

● 역사

역사적으로 재첩은 섬진강 주민들에게 주요 식량이자 수입원이었다. 섬진강 유역의 목도패총에서 발견되는 재첩 껍데기는 선사시대부터 재첩

이 주요 식량자원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고려도경(1124), 난호어 목지(1820), 동의보감(1610), 한국수산지(1908) 등 전근대 역사 문헌에서도 재첩이 언급되며,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918-1392)와 조선시대(1392-1897)까지 재첩이 상당히 대중적인 식자재였음이 드러난다. 오늘날에도 재첩은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어업자원으로서 사용된다.

● 손틀어업방식 (친환경 전통 내수면어업)

섬진강 하구 기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내수면어업이다. 손틀어업은 거랭이(대나무 손잡이와 철망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부들은 이것으로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한다. 이 전통어법은 섬진강 주민들이 오랜 세월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독특한 어업 지식체계라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과 희귀한 가치를 지닌다. 게다가 거랭이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재첩을 채취하는 것은 강의 수상생태계의 순환과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업은 강 유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친환경 어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섬진강의 재첩어업은 중국과 일본의 재첩어업과도 구분된다. 전자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채취하고, 후자는 배 위에서 이루어진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독특한 어법이 사용되는 곳은 손에 꼽으며 이것은 손틀어업이 뛰어난 보호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협력

섬진강 하구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재첩어업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재첩어업은 나이와 성별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두레라고 불리는 협력 조직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섬진강의 다양한 어업 중에서 특히 재첩어업은 적극적으로 두레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재첩채취자들은 출신지(경상도 혹은 전라도 지역)와 상관없이 협력하고 공동의 유대감을 쌓았다.

오늘날 두레전통은 마을 수준의 어업조합의 형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은 전통 노동요를 부르며 힘든 노동을 즐거움으로 돌렸고 뱃고사로 알려진 의식을 통해 풍어를 기원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 마을의 두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섬진강 전통 재첩어업의 계승과 계속된 어업활동은 지역 음식문화의 형성과 확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섬진강 하구는 재첩국, 재첩샐러드, 재첩비빔밥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유지해왔다. 재첩의 효능(간 보호, 숙취 해소, 해독, 빈혈완화, 황달 치유)은 점차 널리 알려졌고, 재첩요리들은 지역 식당과 음식 전문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재첩요리의 대중화는 재첩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따라서 섬진강 재첩어업이 계속되게 했다.

4월에서 11월까지 재첩잡이 손틀어업 활동은 섬진강 주변 자연환경의 계절적 변화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적 경관”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섬진강의 경관과 독특한 전통어업의 지식을 활용하여 매년 재첩축제가 열린다. 매년 조업 시기가 되면 섬진강의 멋진 자연경관과 독특한 재첩잡이 문화의 장면을 직접 경험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수의 관광객이 섬진강을 방문한다.

다행히 섬진강 하구의 건강한 자연 상태가 유지되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개발압력에 취약하다. 게다가, 섬진강댐 건설 후 유량이 감소해 염도 증가, 수질 변화, 외래종 유입 등 여러 가지 환경위기가 야기되었다. 이런 배경에 맞서, 이 지역의 전통어업의 전통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섬진강 주민들은 수질 개선, 염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와 재첩 대량 폐사 예방, 재첩 서식지 확대, 지속가능한 최대 수확량 계산을 통해 남획 방지 등의 보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결론

이러한 점에서, 섬진강의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섬진강 주민들의 식량안보와 생계, 수상생태계 보존, 다양한 지역문화 형성, 빼어난 문화경관 창조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농업유산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손틀어업은 한국중요어업유산(KIFHS)의 일부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섬진강 유역은 재첩 서식지 보존을 위한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첩은 중국(양쯔강 유역), 일본(홋카이도 남부지역), 그리고 한국의 기수역뿐만 아니라 강과 개울에서도 서식한다. 세 국가 모두 재첩 서식지와 어획량의 감소 문제에 직면해왔는데, 이것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강 하구의 개발로 야기된 수질오염과 환경의 변화에 의한 현상이다. 위험요소들로 가득한 내수면어업의 위기를 고려할 때, 섬진강은 상당히 중요한 지리학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섬진강 손틀잡이 재첩어업은 재첩과 다양한 기수역 어종 보호는 물론 전통적인 내수면 어업의 전승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하다.



**참조 : 한국중요
어업유산**

유산명칭	대상 지역	특징
<p>제주 해녀어업 (제1호) (‘15. 12. 21)</p>	<p>제주도 전역 (14,346ha)</p>	 <p>·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으로 불턱, 해신당 등 물질과 관련한 전통풍물이 다양해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 존재</p>
<p>보성 빨배어업 (제2호) (‘15. 12. 21)</p>	<p>전남 보성군 별교읍 장암리 일대 (35km²)</p>	 <p>· 밟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 특성 때문에 빨배는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p>
<p>남해 죽방렴 (제3호) (‘15. 12. 21)</p>	<p>경남 남해군 삼동/창선 면 지족해염 일원 (537.2ha, 죽방렴 23 개소)</p>	 <p>·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시스템</p>
<p>신안 갯벌 천 일염업 (제4호) (‘16. 10. 31)</p>	<p>전남 신안군 천일염전 일 대 (29.7km²)</p>	 <p>·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전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시스템</p>

<p>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제5호) (‘17. 12. 1)</p>	<p>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 리, 가교리, 봉명리 일대 의 지주식 김 양식장 (358ha)</p>	 <p>· 얇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노출을 반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 전통적 김 양식어업</p>
<p>무안·신안 갯 벌낙지 맨손어 업 (제6호) (‘18. 11. 30)</p>	<p>무안 탄도 및 신안 선 도 일대 갯 벌(118.35 km²)</p>	 <p>· 낙지의 생태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로 포획하는 전통 낙지잡이 어법</p>
<p>하동·광양 재 첩잡이 손틀어 업 (제7호) (‘18. 11. 30)</p>	<p>하동군, 광 양시 섬진강 하류 일원 (140ha)</p>	 <p>·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법</p>
<p>통영·거제 견 내량 돌미역틀잇대 채취어업 (제8호) (‘20.7.3)</p>	<p>통영시, 거 제시 견내량 해협 일원 (63.6ha)</p>	 <p>서식환경이 잘 보존되고 빠른 유속과 깨끗한 수질의 견내량 수역에서 자란 미역을 틀잇대(도구)를 이용하여 채취 하는 전통어업</p>